

“500만 관광시대·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실현”

올해 새해설계

윤병태 나주시장

푸드테크·에너지 국가산단 등 지역 성장 박차 190억 규모 긴급 대책...지역경제 회복 '총력'

“올해 500만 나주 관광시대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나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축산 생명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 착공과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천연이음나주배 기반 확대와 명품 한우 브랜드 개발을 통해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과 301억원 규모의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23일부터 11일간 '농업



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4년만에 나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다양한 콘텐츠와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해 박람회 성과가 나주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의 도약도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한국에너지공대와 협력해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 착공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에너지국가산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관광산업에서는 영산강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영산강 정원 조성 등 영산강 삼백리길 조성 등으로 500만 관광시대를 구축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한 영산강 축제를 기반으로 나주를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영산강 삼백리길 조성사업,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등 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복지과 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빛가람동초등학교 신설과 중학교 학급 부족 문제 해결, 나주애움마우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나주시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전세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배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총 35건, 190억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어둠이 깊을 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새해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혼란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 위기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농어촌 수도’ 해남군, 로컬푸드 매출 167억 달성

판매 품목 확대...건강 먹거리 핵심 거점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 급식지원센터가 개장 3년여만에 167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97억원, 70억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했다.

해남읍 구교리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래로 30만여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면서 해남의 건강 먹거리 정책을 이끌고 있는 핵심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개장 초기 104농가, 210개 품목으로 시작한 매장 규모가 지금은 589농가, 793개 품목으로 확대돼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농 위주의 출하 농가들은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가 소득 또한 크게 향상돼 ‘일급받는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 냈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 50개소 5천700여명과 대한조선 등 공공급식 업체 7개소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해남의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

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괄목할만한 로컬푸드 성과는 민선 7-8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해남 2030 푸드플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지역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 ‘해남 2030 푸드플랜’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 비전을 세우고 5대 전략, 10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로컬푸드 직

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성공리에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해남군은 올해까지 2년 연속 지역먹거리지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장 3년여만에 167억 원 매출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해남읍 해남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이용객들 모습. <해남군 제공>

“새해 금연은 영암군보건소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상담...6개월 지속관리

영암군보건소는 9일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자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 결심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은 영암군보건소 금연상담실과 삼호보건지소에서 실시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

두 곳에 방문하면 일산화탄소 호기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후 1대1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결과에 따라 금연 보조제 사용, 금단 증상 대처 방법 등 행동요법을 안내하고 6개월 지속 관리에 들어간다.

이번에 새로 금연 결심자로 등록

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2·4주, 3·6개월 주기로 니코틴 보조제, 중단 등 행동 강화 물품을 추가 지급한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의지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을 돕기 위해 전문요원이 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금연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영암군보건소가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작년 계약심사 21억 예산 절감

철저한 사전심사·예산 관리 체계 결실

강진군은 9일 “2024년 계약심사를 통해 총 21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절감액인 8억7천만원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로, 강진군의 철저한 사전심사와 혁신적인 예산 관리 체계가 결실을 맺은 결과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발주 전에 사업비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로, 군은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

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강진군은 이번 성과를 위해 불합리한 공법 및 과대 반영된 요율을 개선하고, 누락된 공정을 보완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218건의 계약이 심사를 받았으며, 전체 사업비 1천390억원 중 약 1.53%를 절감했다.

강진군의 기준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용

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진군은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에 다시 환원해 주민 복지와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계약심사를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재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운영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완도 관광명소인 다도해 일출공원 집라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완도 수목원. <완도군 제공>



완도 방문의 해 ‘1천만 관광객 시대’ 정책 추진

단체 관광객 유치·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

완도군이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삼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다채로운 관광 정책을 펼친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국제슬로 시티엔터테인먼트와 제(회)협의 날 기념행사,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국제·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세계 무대에 완도의 잠재력을 선보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완도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 완도 365일, 힐링 완도 365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히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운영해 개발, 단체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해안치유센터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유료 관광지·체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대폭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20명 이상 유치였으나 10명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완도 여행을 하고 싶은 개별 관광객에게는 사전 신청에 따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1팀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관내 업소 이용 쿠폰 또는 완도 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정정마켓’

이용 포인트 지급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특별 여행 주간(4-5월, 9-10월)을 운영해 완도 대표축제인 ‘정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정정 완도 가을 섬 여행’과 접목해 웰니스 투어 상품, 인플루언서 여행 클래스, 스텝투어,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 방문의 해’ 관련 자세한 정보는 3월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 치유의 섬이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 건강한 먹거리 등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며 “다양한 관광 정책을 펼쳐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 운영 사업체 모집

내달 5일까지 신청...농업기술센터 기술 전수

신안군은 9일 “오는 2월5일까지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을 운영할 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 기간 판매된 인기 김밥들을 축제 기간 외에 도 맛볼 수 있는 신안김밥 전문 판매점 육성 방침을 세웠다.

신청 대상은 신안세계김밥페스타와 연계한 신안김밥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신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올해 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신안김밥 전문점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신안세계김밥페

스타를 통해서 개발된 신안김밥 레시피를 신안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연중 판매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김밥축제가 새로운 식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240-4132)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양훈기 기자

목포시 연산동-(유)솔마루, 취약계층 후원 ‘맞손’

목포시 연산동은 9일 “지난 7일 ‘우리 동네 나눔가게’와 (유)솔마루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연산동은 9일 “지난 7일 ‘우리 동네 나눔가게’와 (유)솔마루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은 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2개 사업체 및 개인 후원자의 협동 및 재능기부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솔마루와 첫 나눔가게 협약

을 체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산동의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최진배 (유)솔마루 대표는 “늘 목포 지역사회에서 작은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함께 했다”며 “연산동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진 연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나눔가게를 발굴하고 후원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를 꾸준히 실천하겠다”



고 전했다.

정성권 연산동장은 “나눔을 몸소 실천해 준 최진배 대표에 감사하다”며 2025년에도 위기·취약가구 발굴과 나눔을 추진해 이웃사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